

보도설명자료 (‘18. 12. 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(11.22일 발표)은
중소조선사와 중소기업자재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
대책 (머니투데이 12.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「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(11.22일 발표)」은 중소기업자재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이들 중소기업체에 지원될 예정입니다.
- 12월20일 머니투데이 <기울어진 조선소 지원, 중형 예산은 5.7% 불과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① 「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」에서 중형조선소에 책정된 예산은 전체 7조원의 예산중 5.7% 수준인 4천억원에 불과
- ② 특히, 중형선박 RG 보증 1천억원은 중형선박 선가를 고려할 때 지원규모가 부족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① 중소기업자재 대상 1조원 규모 중소기업자재 시장 창출
 - 공공선박의 친환경선박으로 발주 의무화 추진 등을 통해 '25년까지 약 1조원 규모인 중소기업자재 시장 140척을 발주하여 친환경 중소기업자재 시장을 창출할 계획임

- 아울러, 핵심기자재 기술개발, 시범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자재의 친환경선박 건조역량 확보도 지원할 계획임

② 중형선박 RG 보증 규모는 소진상황을 보아가며 확대를 검토

- 중소기업자재 RG 보증 프로그램 예산 확대(1천억원→2천억원)를 통해 중소기업자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RG 발급을 지원할 계획임
- 중형선박 RG 보증 프로그램의 현재 지원규모는 1천억원이나, 소진상황을 보아가며 관계부처와 규모 확대를 검토할 계획임

③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약 1조 6천억원 지원 추진

- 중소기업자재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개발(5천억원, 예타예정), 수소·전기선박 개발(6천억원, 예타예정), 설계경쟁력 강화 지원사업(921억원), 스마트 K-야드 사업(3,850억원, 예타예정) 등을 추진할 계획임

※ 문의: 조선해양플랜트과 윤성혁 과장/김덕구 사무관 (044-203-4331)